

'선원총람' 드디어 출간

1100년 선원역사 집대성...선맥도 체계화

실상사 선원 개원(828년) 이래 1100년만에 선원 최초 종합자료인 <선원총람>이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도원)가 2년간의 작업 끝에 집대성한 <선원총람>에는 근·현대 한국 불교 선종이 결사를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선맥도 태고 보우스님을 연원으로 만공스님에 이르기까지 체계화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불교의 계율이 파괴되고 선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선종을 지키고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해인사 정혜결사, 봉암사 정려사, 말암사 만일결사 내용등도 정리해 놓아 현재 조계종 종풍형성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평가받고 있다.

<선원총람>의 발간은 선종을 표방하는 종단임에도 불구하고 선원에 대한 정리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1100여년만에 종합자료를 처음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조계종의 전통과 정체성 확립, 승종진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원총람>의 내용을 보면 경허 만공 이래 우리나라 선원의 가풍이 108합되었다는 것과 장좌불와와 묵언, 법거량, 철거한 규칙, 대중공양 등이 대중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금산사 서래선원, 대승사 대승선원 등 옛선원 45곳, 비구선원 43곳, 비구니선원 32곳, 국의 및 국제선원 5곳, 구산선원 9곳, 결계해제법어, 선원연표, 선사비문, 법맥도표, 140여 선원의 모습, 선사들의 생활모습 사진자료, 오도송

전법계 안거기록, 선사장강, 시기별 정진대중수와 현황이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이와함께 선원개관과 관련하여 '선원의 성립배경(지관스님)' '선원의 역사(성보스님)' '선원의 위상과 역할(종범스님)' '한국불교선맥전승사(김인수)' '선원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원웅스님)'에 대한 논문 5편이 실렸다.

불학연구소장 도원스님은 "선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지만 불림문자를 표방하는 선원의 자취를 찾기가 힘들었다. 근대 선원에 대한 기록조차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없었다"며 "<선원총람> 편찬으로 선종이 제작되기를 바라며 이번 작업을 계기로 더욱 자료를 발굴해 보다 짜임새있는 제2의



<선원총람>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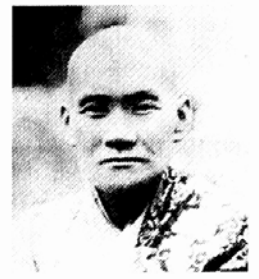
한편 조계종 교육원은 14일 오후 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원총람(1640페이지)> 고불식당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출가절에 읽는 '큰스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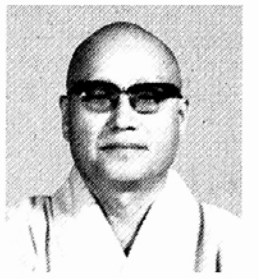
발굴화제 한암스님과 탄허스님 첫 서신 '공개'

오는 13일(음력 2월8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29세에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불문에 귀의한 출가절. 서산스님은 <선가구경>에서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며 출가의 위대함과 출가자의 본분을 밝혀 놓았다. 지금 교계는 초발심으로의 회귀와 수행풍토 진작이라는 자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 때에 맞춰 유·불·선을 갖춘 대강백 탄허스님이 20세 때(1932년) 출가의 뜻을 품고 당시 선과 교를 겸해 수많은 제자를 길러왔던 스승 한암스님(1876~1951)에게 띄운 첫 편지와, 이를 받고 제자에게 출가정신을 담은 답을 보낸 한암스님의 첫 서신을 최초로 공개한다.

서신에는 발심해 출가를 향한 젊은 탄허스님의 간절한 구도의



한암스님



탄허스님

지와 같은 고민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으며, 스승 한암스님의 따뜻하고 거룩한 가르침이 알알이 배어있다. 아쉽게도 친필 서신은 탄허스님 생존 당시 지사였던 희태스님이 다른 많은 서신들과 함께 별도로 보관해오던

중, 한 객스님이 가져가 보존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은 탄허스님의 제자로, 스님이 직접 강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해온 서우담씨(도서출판 교림 대표)가 제공했다. 위영민 기자 (yryui@buddhopia.com)

한지원은 부다피아(www.buddhopia.com)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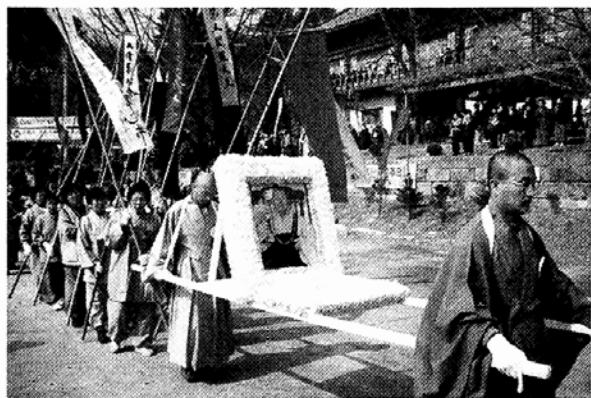
봉선사 불사-수행 '한평생'

운경당 기흥스님 행장

2월 27일 봉선사에서 입적한 운경당(雲鏡堂) 기흥(基弘) 대종사(大宗師)는 1905년 충남 서산에서 출생했으며 1925년 봉선사에서 찬우(讚雨)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29년 해인사에서 용성(龍城)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계했다. 이후 해인사 김용사 유점사 강원사 수학하고, 대승사 수덕사 표훈사 유점사 등 선원에서 50년간을 성안한 스님은 수행을 본분으로 삼는 출가장부의 일생을 몸소 보여주셨다. 1948년 자재암 주지(대덕법계 종수), 1940년 흥흥사 주지, 조계종 경기교구 총무국장을 역임한

스님은 1968년 봉선사 총무국장, 중앙교무원 평의원, 1994~97년 봉선사 주지, 1995년 봉선사 문장, 원로회의 의원, 봉선사 조실 등의 소임을 맡았다.

스님은 일제치하에서 국권의 회복을 위해 조선민족해방당을 지원하다가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해방이후에는 운허스님을 도와 동국학원을 설립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6·25동란으로 폐허가 된 봉선사의 재건을 위해 탁발을 사양하지 않고 의정부포교당과 봉화정사를 일으켜 조계종 제25교구 본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특히 봉선사 주지 소임을 맡을 당시에 능엄학당을 설립, 교종본산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27일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거행된 영결식을 마친 후 대비정으로 향하는 운경스님의 법구.

운경스님은 "허개비세상 구십년에 한빛이로다(大光明)는 열반계(涅槃偈)를 남겼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2007년까지 포교공동체 건설"

조계종 포교사단 '비전2007' 발표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 포교 조직에 바탕한 비전 2000을 발표하고 정법포교사 양성, 불교적 가치의 사회적 실천, 자발적 참여에 의한 깨끗한 포교공동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교사단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4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주된 내용은 팀활동 확대, 포교 지침서 개발, 전문포교사 체제 구축, 지역포교사단 회관 건립으로 압축된다. 포교사단은 특히 내년까

지 전문포교팀을 현재의 90개에서 150개로 확대해 포교사단에 가입하지 않은 포교사들을 포교현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침이다. 김기병단장은 "자체회비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포교사단은 불교포교를 위해 몸과 마음, 시간, 자금을 바칠 자세가 충분이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교사단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신규포교사 품수식 및 포교사단 출범식을 갖는다. 김원우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겨울잠 자고나면...

현대의학은 간경화, 전이된 암 환자들을 왜 효과도 없는 치료 술을 써서 죽음으로 내모는가?

제3의학 의단요법 疑團療法는 간경화, 전이된 암 환자 분들을 공개 임상 치료에 초대합니다. 이 공개 임상 치료에 방송사, 언론사, 사회단체, 종합병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공공단체가 참여하여 치료 사실을 공명정대하게 확인하여 알림으로써 현대의학이 포기한 불치병으로 죽어 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새 삶을 줍니다.

1. 현대의학의 허구성

- (1) 현대의학을 한다는 의사, 약사들은 질병의 증상 자체만을 병으로 보고 그 증상을 제거하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대중요법) 그리하여 질병부위를 잘라내고(수술), 항생제, 항암제 등의 약물을 쏟아 붓고서 최고 최선의 치료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 (2) 그러나 수술은 신체의 완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완치될 수 없는 부작용이 따르고, 독한 약물은 인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면역력(저항력)을 철저히 파괴하여 오히려 환자의 몸을 전체적으로 빨리 죽게 만듭니다.
- (3) 전이된 암, 간경화 등의 중병을 수술에 의하여 완치된 환자가 몇 명(또는 몇%)이나 되며, 항암제, 항생제를 가지고 치유된 환자는 또 몇 명 또는 몇%나 됩니까? 항암제,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켰거나 반대로 항암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환자가 빨리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4) 올바른 치료방법의 판단기준(척도)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또는 거의 대부분의)환자들이 누구나 완치되는 것이 진정한 척도 일뿐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환자가 사망하는 치료방법은, 그것이 제 아무리 최고 최선의 현대의학에 의한 치료방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치료자의 자기만족 내지 변명일 뿐 진정한 의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5)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 약사들이 암, 간경화 등의 난치병에 대하여 수술과 독한 약물요법으로 접근하여 의학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하겠다고 하면서 환자를 죽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무지함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요, 세상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 (6) 그들은 암, 간경화 등을 난치병 내지 불치병이라고 하나, 그들의 치료방법이 잘못되어 그런것일뿐, 달리 접근하면 그러한 질병들은 만성질환에 불과하지 결코 난치병,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완치를 책임지는 확실한 치료법 - 신의학 의단요법 新醫學 疑團療法

- (1) 신의학 의단요법 치료원리 新醫學 疑團療法 治療原理
만성질환이 발생하는 신체적 근본원인은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이므로 그 불균형을 개선하여 주면 질병 자체가 소멸됩니다.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이 생기는 원인은 생물적 목적의식 目的意識과 주관적 의식 主觀的意識 사이의 갈등 때문입니다. 유사한 이론으로 양의사들이 성인병의 발병원인의 하나로 스트레스를 드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 (2) 신의학 의단요법 新醫學 疑團療法의 치료 대상 및 책임 보장 보상금
현대 의학상 치료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으면서, 6개월 이상 자력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만성질환의 환자로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월 1회 의단요법疑團療法를 치료받은 환자 10명중 9명 이상 완치를 책임 보장합니다. 만약 치료 후 병원 검사 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라는 편지가 나오면 치료비를 돌려 드립니다. 덧붙여 치료 지연 보상금 일천만원(1000만원)을 보장합니다.

(3) 신의학 의단요법 新醫學 疑團療法 의 치료 일정과 치료 효과

의단요법疑團療法의 치료 일정은 월 1회 6박7일 또는 3박 4일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한다. 치료 효과는 누구나 7일 이내에 나타나며 탁월하고 경이로운 분 부작용은 조금도(1%) 없으며, 치료의 승패는 3회(2개월)치료를 환자의 치료 결과를 과장 해볼 수 있습니다. 효과의 예로서 간 경화 환자를 예시하면 합병증이 온 비대성상 환자는 정기적으로 투약을 해야 할 것이나 본 의단요법疑團療法는 첫 치료일 부터 투약을 끊게 하니 환자의 현상은 고통이 사라지고 합병증인 식욕부진, 복수, 황달 등등의 증상은 3회(2개월)치료를 서 중추를 발견할 수 없으며 전문의사의 검진 결과 증상의 호전으로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이제는 생명이 지장이 없습니다 라는 소견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치료로서 외형적 현상으로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완치로 오인할 함이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데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4) 완치된 사람들 소개

종합병원에서 치료 불가 시한부환자들은 확신을 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본인을 만나 의단요법 치료를 받고 완치된 사람들 10여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00 (女) (290101-2008029) (치매, 파킨슨병)
- 2. 강00 (女) (330426-2268011) (전이된 자궁암말기 환자)
- 3. 조00 (女) (540308-2822514) (유방암 1cm의 혹)
- 4. 홍00 (女) (540707-2622129) (말기 간경화 간이식수술 접수)
- 5. 김00 (男) (800228-1109811) (만성신장병)
- 6. 황00 (女) (700921-2548011) (신경다발성경화증)
- 7. 신00 (女) (800308-2823015) (정신장애)
- 8. 강00 (男) (420310-1820921) (말기간경화, 당뇨 환자)
- 9. 정00 (男) (460902-1552523) (간경화, 간암 환자)
- 10. 서00 (男) (610830-1629725) (암 환자)
- 11. 장00 (女) (601005-2829118) (전이된 유방암 4cm 간에 1-2cm크기의 다수의 혹)

3.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차례입니다.

만성질환 치료에 최대의 적은 치료효과도 없는 기존의학자식의 노예가 된 전문 의사 약사라는 사실을 지면을 통하여 환자 분들에게 밝히고자 함이 있으며 치료란 모름지기 완치를 전제로한 치료방법만이 진정한 의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경화, 암 등 난치성 만성질환들은 의단요법疑團療法으로 볼 때는 난치병이 아닙니다. 환자 여러분들은 효과도 없는 기존의학에 자신의 생명의 시간을 허약당함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길 권하는 바입니다.

http:// www.no3medical.co.kr ☎ 032-3478-119~8 / 011-559-811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0-3 동우 B/D 405호

新醫學 疑團療法 의단원 대표 理 農